

<재일문학>과 김희로 사건

—김학영 「시선의 벽(まなざしの壁)」을 중심으로—

임 상 민*

(e-mail : y3k76@hanmail.net)

<목 차>

- | | |
|--------------------------|------------------------|
| 1. 들어가며-<재일문학>의 연구방법론 | 4. '중간자' 포지션과 은폐되는 권력성 |
| 2. 김희로 사건과 김학영의 자기 구축 회로 | 5. 나오며 |
| 3. 공모하는 자기 구축과 타자 표상 | |

キーワード：金鶴泳(Kim, Hak Young), 金嬉老事件(Incident by Kim, Hee Ro), 在日文学(Zainichi Korean Literature), 在日朝鮮人2世(Second-Generation Korean Japanese), 北朝鮮帰国事業(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1. 들어가며-<재일문학>의 연구방법론

최근, 한국에서의 '재일문학'에 대한 연구방법론은 '재일문학'이라고 하는 고정된 문학공간 속에서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간극을 추적하는 방법론에서, '재일문학'을 유동적이고 상호수행적인 문학공간으로 재인식하고 '일본문학'과의 영향관계 및 '재일문학' 내부의 역학관계, 그리고 특정 지역과 국가 그 자체를 상대화하려는 디아스포라 연구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물론 본고에서 분석을 시도하는 김학영에 대한 연구방법론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면, 이재봉은 김학영의 '말더듬이'라고 하는 모티프를 일본과 영어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건 다른 언어권으로 편입될 때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¹⁾'라고 지적하면서 연구방법론의 지역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일본근현대문학, 문화전공.

1) 이재봉(2010) 「틈새 인간의 말더듬이 존재론-김학영과 그의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43, 현대문학이론학회, p.390.

적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승진은 재일문학에 대한 ‘연구의 중심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김학영은 일본 주류문단에 재일2세 문학을 실질적으로 인지시킨 시발점이자, 일본화된 자아와 재일의식을 첨예하게 다루었다”²⁾라고 하면서 재일문학과 일본문학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한국인 재일문학 연구자들의 연구방법론이 동시대적인 측면에서 시사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는 틀림없지만, 재일조선인 리켄지(李建志)의 다음과 같은 글을 읽으면 재일문학을 연구하는 한국인 연구자의 또 다른 관점의 부재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민의 중심인물이었던 나사니엘 세보레의 피를 잇는 서구계 도민은 지금도 「세보레」 또는 「세보리(瀬堀)」라는 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물론 세보레 집안 이외의 서구계 도민도 많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가사와라(小笠原)에 흥미를 가졌다. 오가사와라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자는 자신이 매조리티, 즉 「지배적인 사회 및 문화를 가진 자」= 「본토의 인간」으로 대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 「체제」의 책임에 대해서 일본인도 아닌 필자가 추궁당하는 것은 이상한 경험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과 같은 구조는 필자의 한국 유학 시절에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난 필자는 당연 「일본」을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매섭게 일본 비판을 당하는 등 황당한 일도 있었다. 심할 때는 일본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필자에게 추궁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웃지 못 할 사실이다.³⁾

오가사와라 제도는 도쿄에서 약 1000킬로미터 떨어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군도인데, 리켄지는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구계 도민으로부터 자신과 같은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가 일본을 대표하는 매조리티로 인식하고 책임을 추궁당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포지션의 전도 현상이 있었다는 경험을 소개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반권력’에도 ‘권력’은 내재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리켄지의 고찰이 시사적인 이유는

2) 이승진(2014) 「재일 한국인 문학과 일본 근대문학과의 영향관계 고찰」 『아시아문화연구』 33,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189-191.

3)李建志(2007) 『朝鮮近代文学とナショナリズムー「抵抗のナショナリズム」批判』 作品社, p.8.

재일문학을 연구하는 한국인 연구자 역시, 결코 재일조선인 문제 및 재일문학에 대해서 한국과 재일조선인을 동일시하며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연구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자면, 강우원용은 재일문학 및 일본의 마이너리티 문학에는 일본 독자들에게 정치적 역학 관계를 상상하게 하는 “정치성 자동부여 기능”⁴⁾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필자가 한국인 재일문학 연구자들의 연구방법론에서 느끼는 부재는 이와 같이 일본 독자들에게는 작동되는 “정치성 자동부여 기능”이 재일문학을 연구하는 한국인 연구자들에게는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일문학의 가능성은 일본인 독자들에게만 내셔널리즘을 점검·수정하도록 ‘이의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일조선인의 작품 활동 및 자기 구축 과정에 한국이 어떠한 형태로 개입되는지를 한일 상호교섭적인 측면에서 분석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재일문학을 연구하는 한국인 연구자의 중립적인 포지션을 비판적으로 재인식하고, 한국인의 내셔널리즘까지를 교란시킬 수 있는 재일문학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대한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일 양국에서 정치적인 사건으로 크게 이슈화되었던 1968년의 김희로 사건을 다룬 김학영의 「시선의 벽(まなざしの壁)」⁵⁾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2세의 자기 구축 프로세스와 작가 김학영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한일 상호교섭성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한다.

2. 김희로 사건과 김학영의 자기 구축 회로

김학영의 「시선의 벽」은 ‘4년 전’에 데뷔한 소설가이자 동경의 ‘T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재일조선인 2세 ‘이수영(李壽永)’이 데뷔작에서는 ‘본능적으로 회피’했던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경멸과 차별의식 등과 같은 ‘편견의 시선’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재일조선인 2세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해 가는 이야기이다. 소설의 도입부는 이수영의 데뷔작에 대해서 오키나와 출신의

4) 강우원용(2010) 「일본 마이너리티문학의 양상과 가능성」 『일본연구』 14,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pp.220-222.

5) 김학영의 「시선의 벽(まなざしの壁)」은 1969년 11월에 『文芸』에 게재되었고, 1970년 7월에 출판된 『얼어붙은 입(凍える口)』(河出書房新社)에 수록되었다. 이하, 본고에서의 본문 인용은 본 서적에 의한다.

비평가 K는 “조선인에 대한 편견의 시선이 오늘날 뿌리 깊게 일본인 속에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는 한, 현실 변혁의 힘을 바르게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현실을 작가 자신이 간과하고 있다면 그것은 작가의 실수이며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략)하지만 아마도 작가는 알고 있다. 알면서 속이고 있는 것이다.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 현실을 속이고 또한 은폐하고 있다”(205쪽)고 하면서, 이수영은 데뷔작에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편견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알면서 속이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K의 비판에 대해서, 주인공 이수영은 다음과 같이 자가진단을 시작한다.

조선인은 모두 일본에 대해서 콤플렉스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식의 K의 비판이 그에게는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오히려 그러한 시선을 차단한 곳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쾌한 악취가 풍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본인이 집에 돌아가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일본인과 똑같이 되어버린 스스로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모른다. 그보다 오히려 그와 같은 시선에 괴로워하면서도 그 시선이 의미하는 것에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 무언가 투명한 불안감을 느낀다. 『겨울 어느 날(冬の日に)』에서 그러한 시선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몰랐기 때문에 묵살했던 것뿐이라고 그 당시의 수영은 생각했다.(205-206쪽)

주인공 이수영은 데뷔작에서 조선인에 대한 보편적인 편견의 시선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는 ‘K’의 비판에 대해서, 소설 속에서 편견의 시선을 기술하지 않았던 것은 보편적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편견의 시선과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사이에는 결코 ‘조선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아이덴티티와는 부합하지 않는 ‘투명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반론한다. 즉, 이와 같은 ‘투명한 불안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은폐’가 아닌 ‘묵살’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자기 구축을 둘러싼 ‘투명한 불안감’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는 점이다.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듯한 또는 조선인이기도 하고 일본인이기도 한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숙명으로부터 자신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와 같은 시선을 받는 쪽의 사람인 동시에 그와 같은 시선을 보내는 쪽의 인간, 그 양자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알고, 이를 통해 오히려 자신은 그와 같은 시선의 정체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시선을 만들어낸 국가, 또는 민족,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사고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또는 끝까지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만이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해방이 있는 것은 아닐까.(299쪽)

재일조선인 2세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투명한 불안감’을 느꼈던 이수영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 어느 한 쪽으로 동화되지 않고, 양쪽을 동시에 내포한 이른바 ‘중간자’의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면서 ‘투명한 불안감’으로부터 ‘해방’을 이끌어낸다. 물론 중요한 점은 ‘중간자’라고 하는 주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축되는가인데, 일단 이와 같은 자기 구축의 과정에 김희로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인공 이수영은 김희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있었던 며칠 간 만큼 뼈저리게 그 시선을 느낀 적도 없었다”(294쪽), “김희로 사건은 지금의 그에게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소름끼치는 일이었다”(295쪽), “김희로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쪽에 내장하고 있는 자신과 같은 조선인에게도 소충을 들이댄 것이다”(295쪽)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수영은 자기 구축의 탐색 과정에서 느끼는 ‘투명한 불안감’을 김희로 사건을 계기로 그와 같은 불안감에서 ‘해방’할 수 있는 자기 구축의 회로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 구축의 회로는 단순히 소설 속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작가 김학영의 자기 구축 및 작품 활동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다. 김학영은 김희로 사건 발생 2개월 후, 동 사건에 대해서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일기장도 끝이 가까워졌다. 이 일기장의 제목을 「김희로 사건」으로 하려고 한다. 「김희로 사건」이 나에게도 커다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여러 의미에서 <커다란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건에 대해

서 보도된 마스크의 반응, 그 반응의 모습에서 표출된 일본인의 조선관, 또는 조선인관이 나에게는 <커다란 사건>이었다. 나로 하여금 <일본>에서 한층 더 <조선> 쪽으로 밀어냈다는 의미에서 <커다란 사건>이었다. 나 자신에게 유익했다기보다도 쓸쓸하고 우울한 사건이었지만 말이다. <조선인문제>는 나에게는 항상 우울하다. 그것은 인간을 바꾸는 것, 인간개조의 우울함이라 해도 좋다.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의 인간개조.⁶⁾

위의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김학영에게 김희로 사건은 일기장의 표지 제목을 붙일 정도로 충격적이고 ‘커다란 사건’이었으며, 동 사건에 대한 일본인의 ‘조선관’ 및 ‘조선인관’이 본인을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인간개조’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기 내용은 소설 속에서 주인공 이수영이 ‘투명한 불안감’에서 김희로 사건을 계기로 중간자라고 하는 주체를 구축해가는 모습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설 속의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이승진은 동 작품을 작가 김학영에게 ‘억압과 피억압’을 인식시킨 결정적인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고, 야마사키 마사즈미(山崎正純)⁷⁾는 김학영은 재일 2세의 조선과 일본의 애매한 이중기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주체의 근거’로 재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억압받은 쪽의 자기표현의 기반과 억압하는 주체에 대한 비판의 형태를 모색하는 재일조선인 서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소설 속에서 구축된 중간자의 포지션과 작가 김학영이 말하는 ‘인간개조’를 같은 의미로 인식한다고 해도, 그와 같은 자기 구축은 결코 완성된 ‘인간개조’도 아니며 또한 고정적인 주체 역시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1968년 7월 8일의 일기에서는 “일본인의 선의를 신뢰한 예를 들면 김희로 사건 등에서 자신이 호소한 것들도 웬지 바보처럼 느껴진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면, 내가 그러한 세상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적어도 그것이 <고독자>의 자세가 아닌가”(500쪽)라고 기록하고 있고, 「시선의 벽」이 집필된 이후의 1970년 2월 1일 일기에서도 ‘이른바 조선인문제를 일본인에게 호소하는 식의 글쓰기는 이제는 그만두려고 한다. 그런 것을

6) 金鶴泳(2004) 「金鶴泳日記抄」 『凍える口金鶴泳作品集』クレイン, p.496. 이하 김학영의 일기는 본 서적에서 인용.

7) 山崎正純(2003) 「金鶴泳論—「まなざしの壁」」 『戦後<在日>文学論—アジア論批評の射程』洋々社, p.45.

아무리 일본인에게 호소해도 소용없기 때문이다’(524쪽)라고 말하고 있듯이, 김학영의 ‘인간개조’가 반드시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야마사키 마사즈미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수영의 조선과 일본 양쪽 모두를 비판할 수 있는 중간자라고 하는 포지션의 확립은 문장 그대로라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주체가 ‘일본인의 선의’에 기반을 둔 ‘일본인에게 호소하는 식의 글쓰기’밖에 구축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소설 속 이수영의 중간자라고 하는 주체의 형성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작품에 밀착된 조금 더 정치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작가 김학영은 ‘인간개조’의 어려움에 대한 ‘우울’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면 「시선의 벽」에 대한 일본문단의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 작품의 집필시기에 작성된 일기를 보면, 1969년 8월 6일에 집필을 시작해서 일주일 후인 8월 12일에는 ‘머릿속 “느낌”대로 표현 가능하다면 상당한 걸작이 될 것이다’, 8월 15일에는 ‘상당히 순조롭다. 이렇게 쾌조인 것은 「얼어붙은 입(凍える口)」 속 「이소가이(磯貝)의 유서」 이후 처음이다. 3년 만이다. 문체도 「이소가이의 유서」와 꼭 닮아 있다. 「자신의 문체」는 바로 이런 것일까’(518쪽)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9월 30일, 초고를 끝낸 뒤의 일기에서는 「시선의 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대감을 기록하고 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탄성한계(弾性限界)」 때에도 교정이 끝나고 잡지가 발행될 때까지의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항상 자조에 시달렸다. 자신이 쓴 소설이 대중에게 읽힌다는 것이 너무나도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이 이번 경우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지금의 나는 잡지가 나오는 8일이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려진다. 그리고 「시선의 벽」으로 이번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을 정말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책상을 향해, 명하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흥분하고 있다.(520쪽)

그런데 위와 같은 김학영의 아쿠타가와상에 대한 기대감과는 달리, 동 작품은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고, 1969년 9월에 발표된 「탄성한계」⁸⁾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던 나카무라 미츠오(中村光夫)를 비롯한 모든 비평가들이 ‘냉담’한 반

8) 金鶴泳(1969.9) 「弾性限界」 『文芸』.

응을 보이게 된다. 김학영은 이와 같은 일본문단의 반응에 대해서 ‘참으로 의외’이며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521쪽)라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학영의 자신감과 달리 왜 일본문단에서는 전혀 평가를 받지 못했을까.

박유하는 재일문학이 일본문단에 편입된 것은 1968년 메이지 백년을 경계로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마음(こころ)』(「朝日新聞」大正3·4·20~8·11)이 국민문학으로 등록되는 시기와 겹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회성이 조선의 민족과 사회를 중심으로 글쓰기를 하면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것과는 반대로, 김학영이 네 번이나 후보에 오르면서도 수상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일본문단은 어디까지나 재일조선인 작가들에게 민족적 “내셔널 아이덴티티에 관해 우선적으로 쓰고 거기에 근거해 살아갈 것을 강요”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더욱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자기 구축을 시도한 전환기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선의 벽」이 일본문단에서 전혀 평가받지 못한 이유가 궁금한데,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와 같은 일본문단의 ‘냉담’한 반응을 주인공 이수영이 구축한 ‘중간자’라고 하는 포지션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3. 공모하는 자기 구축과 타자 표상

소설 「시선의 벽」은 재일조선인 2세 이수영이 편견의 시선에서 느끼는 ‘투명한 불안감’을 해소해가는 이른바 ‘인간개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수영은 지금까지 ‘일본인 쪽에 중점이 놓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본인 측면에서의 편견의 시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탐색하려 한다. 예를 들면, 호텔 프런트 남성의 불친절한 말투와 태도에서 조선인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고, 여자친구 요시노 후미코(芳野文子)가 자기와 헤어진 이유 역시 조선인에서 찾고 있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이유와 취업이 안되는 이유 역시 모든 것을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편견의 시선’ 탓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편견의 시선에 대한 형성 프로세스의 점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9) 박유하(2003) 「<재일문학>의 장소와 교포 작가의 <조선>표상」 『일본학』 22, 동국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p.192.

것이다. 즉, 자기 내부의 일본인 측면에서 느끼는 편견의 시선과 조선인 측면에서 느끼는 편견의 시선에 대해서 점검을 시작하는데, 이와 같은 편견의 시선에 대한 점검이 결정적으로 수정 단계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다름 아닌 김희로 사건이다.

예를 들면, 이수영은 신문 투서란에 투고된 “차별이 싫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됩니다”라는 주부의 글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차별과 이성이라는 것에 너무 기대”했다고 반성한다. 하지만 실제 사건 발생 당시의 김학영의 일기를 보면, 공동통신 기자로부터 받은 전화에서는 김희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김희로와 만나고 싶습니다”(491쪽)라고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김희로 사건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민단과 조총련을 비판하며 “동포의 문제이다. 비난하려면 비난을 하든 개입해야 하지 않은가”(493쪽)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는 공동통신 기자에 대한 답변 및 조직에 대한 비판은 삭제된 채, 오직 가해자로서의 일본 주부의 투서만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앞서 소개한 주부의 투서에 대해서 김학영은 실제로 신문을 통해서 반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소설 속에서 주부의 투서는 신문 ‘목소리(声)’ 코너에 투고되어 있는데, 독자로부터의 투고를 ‘목소리’ 코너를 통해서 소개하는 신문은 아사히신문이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주부의 투서는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 1968년 3월 1일의 ‘목소리’ 코너에 소개된 도쿄의 40세 주부 세키네 도시(関根利)의 ‘나에게는 알 수 없는 식민지 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동 주부의 투서에 대해서 김학영은 1968년 3월 6일에 ‘「돌아가면 된다」로 해결됩니까’(동경 김학영, 작가 29세)라는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반론하고 있다.

1일짜 동 코너, 세키네 도시 씨의 「나에게는 알 수 없는 식민지 의식」을 읽고, 재일조선인 2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분노와 슬픔의 상념을 금치 못 한다. 「차별이 싫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됩니다」라는 문장. 일본에 살기 위해서는 차별과 편견도 경멸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인가. (중략)차별문제 해결의 길은 아직 멀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일본에 사는 조선인에 대해서도 그 대부분이 「전전부터 일본에 사는 것을 강요당한 사람들」의 자식이며 손자이다. 「부모에게는 불일이 있었지만 너에게는 불일 없으니 이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또한 가혹하지 않은

가. (중략)물론 식민지 지배는 20수년전에 끝났다. 하지만 「식민지 의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조선인 마음속보다는 오히려 일본인 마음속에 뿌리깊이 남아있고, 조선인에 대한 민족적 편견, 경멸, 차별이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세키네 씨는 제발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¹⁰⁾

위의 김학영의 반론 기사는 선행연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김학영의 발화 포지션이다. 소설 속에서 이수영은 김희로 사건을 계기로 조선인과 일본인 양쪽을 비판 가능한 중간자의 포지션을 확보하게 되는데, 적어도 위의 신문 기사에서는 ‘재일조선인 2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분노와 슬픔의 상념’을 토로하며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민족적 편견, 경멸, 차별’을 지적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정통적인 조선인’의 포지션에서 발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간자의 포지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위의 신문 반론 기사는 문맥상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신문의 반론 기사는 중간자의 포지션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라고도 해석 가능하다. 예를 들면, 『S문학』 동인의 모임에서 이수영은 ‘김희로는 많은 동포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라고 하며 본인의 발화 포지션이 ‘정통적인 조선인’을 위장하고 있는 가공성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의 반론 기사는 작품 속에서는 『S문학』의 동인 모임에서의 에피소드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이수영은 신문의 ‘목소리’ 코너에 주부의 글이 실렸다는 사실은 편집부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일본인의 평균적인 목소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채용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부에 대한 김학영의 반론 기사가 소개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본인의 반론이 재일조선인의 ‘평균적인 목소리의 하나’로 소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실은 세키네 도시의 글은 김희로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목소리’가 아니라, 재일조선인 박수남의 1968년 2월 26일에 실린 “민족 편견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기사에 대한 반론의 글이었다는 사실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수남은 조선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모르는 ‘비조선인’으로서의 김희로에게서 1958년의 여고생활인사건의 범인 이진우를 오버랩시키면서, 편견을 염려해서 조선인을 조선인으로 대하지 않는 ‘선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0) 金鶴泳(1968.3.6.) 「「帰ればいい」ですみますか」 『朝日新聞』.

현재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는 재일조선인 약 58만 6천 명 중에서 무려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 대부분이 「조선어, 역사, 문화를 모르는」 조선인, 일본인화 되어버린 조선인이 아닌 조선인, 반일본인입니다. 「차별은 하지 않는다,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한다」 라고 하는 선의가 실은 조선인을 조선인으로 묵살하고, 조선인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당한 조선 아이들의 자존심은 상처 받게 됩니다. 나는 오히려 노골적인 경멸보다도 이와 같은 선의야 말로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노골적인 경멸과 차별은 비판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차별이라고 본인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휴머니즘의 선의는 이 나라의 국가적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책임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인 스스로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¹¹⁾

위의 글에서 박수남이 말하는 조선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모르는 일본인화 되어버린 ‘조선인이 아닌 조선인’ ‘반일본인’ ‘비조선인’은 다름 아닌 소설 「시선의 벽」의 재일조선인 2세로 설정된 주인공 이수영의 주체와 그대로 부합한다. 또한 조선인을 조선인으로 대하지 않고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은 조선인을 조선인으로 ‘묵살’하게 되는 것이라는 부분 역시, 비평가 K가 편견의 시선을 의식적으로 속이며 ‘도피’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현실 세계에서 그 시선에 대한 본인의 기본적인 자세는 「묵살」이었다(묵살하려해도 묵살할 수 없는 것으로서는 그것은 아직 그에게 다가오지는 않았다”(270쪽)라고 말하는 부분과도 일치한다. 즉, 박수남의 글은 단순히 일본 비판이 아니라 ‘묵살’에 내포된 ‘휴머니즘의 선의’를 문제화하고 있고, 또한 일본인의 ‘휴머니즘의 선의’ 덕분에 편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재일조선인의 ‘묵살’에 내포된 개인과 국가와의 공모 관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사건 발생 당시의 일기에서 동 사건에 대한 민단과 조총련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개인과 국가의 공모 관계를 지적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적이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는 이와 같은 ‘휴머니즘의 선의’에 내포된 문제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주부의 ‘노골적인 경멸과 차별’만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소설 속에서의 ‘투명한 불안감’의 해소를 통한 중간자 포지션의 구축 프로세스는 ‘휴머니즘의 선의’에 내포된 기만성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자기 구축 과정 속에 한

11) 朴寿南(1968.2.26.) 「民族偏見ないだろうか」 『朝日新聞』.

국과 일본, 그리고 재일조선인 조직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가 배제된 채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을 중심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동 소설이 확립한 ‘중간자’라고 하는 포지션에는 권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4. ‘중간자’ 포지션과 은폐되는 권력성

주인공 이수영은 “휴머니즘의 선의’를 둘러싼 기만성을 회피하면서 구축한 중간자적인 포지션을 통해서, ‘그러한 시선을 만든 국가, 또는 민족, 또는 인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부 아는 것이야 말로, 또는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야말로 자신에게 진정한 해방이 있지 않을까”(299쪽)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결론의 실천으로 작품의 엔딩 장면에는 북한송환사업 당시 재일조선인 단체와 일본의 일조협회가 공동으로 만든 석상이 소개되고 있다. 조선인 소년과 치마저고리를 입은 소녀를 새긴 석상은 1959년 1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북한송환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주인공 이수영은 한참 석상을 올려다보고는 귀국하는 조선인들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그곳에 집중되었을 무수한 그 시선”(301쪽)을 의식하게 된다. 소설의 엔딩 장면은 다음과 같다.

그는 많은 눈이 광장 중앙에 혼자 서 있는 자기 쪽으로 조용히 향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역 건물 앞에 서 있는 사람,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또는 상가 보도에 줄지어 서 있는 사람, 더욱이 광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커피숍 2층의 창가에 앉아 있는 사람, 무수한 그 사람들의 얼굴이 물끄러미 내 쪽을 향하고 있다. 문득 그것을 느꼈을 때, 그는 순간 무언가 기가 죽는 것을 자기 내부에서 느꼈다. 그는 조선인 석상을 열심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알아챘다고 생각했다. (중략) 그는 무심코 증인환시 속에 알몸을 드러낸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여느 때의 그였다면 바로 이 장소를 떠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정신을 가다듬고 천천히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주위를 둘러봤다. 군중의 몇몇이 어렴풋한 눈으로 이쪽을 보고 있을 뿐, 극히 평범한 역전 풍경이 그의 주위에 펼쳐져 있었다.(301-302쪽)

이수영은 역 광장 중앙에 설치된 재일조선인 귀국 기념 석상을 쳐다보는 자기를 주위 사람들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또한 ‘수치심’마저 느낀다. 하지만 “어느 때의 그였다면 바로 이 장소를 떠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투명한 불안감’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단순히 해소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소되었는지가 문제이다.

역 광장에서 북한 귀국을 기념하는 석상을 발견한 이수영은 동 석상이 만들어진 계기는 ‘귀환선이 출항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후, 이수영은 석상 건립에 대한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편견의 시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석상의 주위를 돌며 여러 각도에서 동상을 살펴보면 이것은 동상 그 자체로서는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도 제법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것이라면 오히려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은 자연석을 보기 좋게 설치해서, 기념사만을 새기는 편이 낫지 않았을”(301쪽)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수영은 조선과 일본을 상호 점검할 수 있는 중간자적 포지션을 확립했다고는 말하지만, 이와 같은 주인공의 말과는 반대로 북한송환사업을 삽입하는 과정을 보면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일본인의 편견의 시선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시대의 석상을 둘러싼 한일 간의 정치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석상의 모양을 문제 삼으며 ‘유치하다’라든지 자연석에 ‘기념사만을 새기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라고 트집을 잡고 있다.

1959년 1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북한송환사업은 몇 차례의 중단을 반복하면서 1984년까지 9만 3340명이 일본을 떠나 북한으로 향했다. 귀국한 사람들 중에는 약 1800명 정도의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일본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북한송환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동송환사업을 정치적 문제로 보고 한일회담 중단 등의 협상 카드를 사용하면서 결사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협상 타결 이후, 소설 속에서 귀국을 기념해서 건립된 석상뿐 아니라 기념식수 및 기념품 증정이 일본 곳곳에서 전개되었다. 예를 들면, “군마현의 북조선 귀국자 중에 다카사키시(高崎市)의 사람들은 시청 앞 공원정비에도 현금 10만 엔을 기부했고, 마에바시시(前橋市) 사람

들은 현금 20만 엔을 마에바시 공원 내에 기념으로 학 분수탑 2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며 각각 시장에게 건넸다”¹²⁾라는 사례도 있었고, 또한 나고야에서도 “귀환자가 친선의 버드나무 식수를 하자, 일본 측에서는 한 세대마다 하나씩 보은병과 목각인형을 선물했다. 다카야마(高山), 나카즈시(中津市) 등에서도 귀환자가 모금운동과 기념식수를 했으며, 일본 측은 환송회를 열었다”¹³⁾라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귀국하는 재일조선인의 기념식수 및 동상 건립 등은 일본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행사이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대의 기념식수와 동상 건립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북한으로 귀국선이 출항하는 니가타(新潟)에서는 시내 중심에서 항구까지의 도로에 300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어 ‘버드나무길’로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따라서 니가타 지사는 일본과 북한의 ‘일조친선’을 바라는 귀국자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전별금을 보내자고 전국 도도부현에 동참을 호소하지만, ‘찬성자가 의외로 적었다. 재정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정도의 돈을 지불 못 할 리가 없다. 적어도 의원들의 세비 인상이나 퇴직금보다도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일 것이다’¹⁴⁾라고 전하고 있듯이, 많은 도도부현에서는 전별금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읽으면, 왜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전별금에 대해서 주저했는지를 알 수 있다.

“북조선 귀국”을 기념해서 조선과 일본의 청년들이 건립을 계획한 “우호친선”의 기념동상이 예정지인 오타(大田)구민회관에 설치되는 것을 허가받지 못하고, 작년 가을 이래 오타구청 내의 도쿄도청직원노동조합 오타지부에 방치된 채로 있다. 이야기를 들은 오타구청이 「한국계와의 관계 등의 미묘한 문제도 있고, 모처럼 만든 기념동상에 장난을 치면 곤란하다」고 수용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조양국 청년이 “우호의 약속”의 마음을 담은 기념동상이지만, “미묘한 문제”에 발목이 잡힌 형국으로 아무래도 햇별을 볼 날이 없을 것 같다.¹⁵⁾

재일조선인 청년과 일본인 청년에 의한 ‘우호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기념동상은 결국 ‘한국계’와의 ‘미묘한 문제’로 인해 창고에 방치되는데,

12) (1959.11.4.) 「帰還記念にと贈物」 『毎日新聞』.

13) (1959.12.8.) 「北朝鮮に帰る日近く」 『朝日新聞』.

14) (1959.11.9.) 「余録」 『毎日新聞』.

15) (1960.1.11.) 「日の目を見ない“日朝親善”の像」 『朝日新聞』.

소설 속의 기념 석상과는 달리 전국의 많은 곳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되는 것을 염려해 동상 설치를 보류했다고 위의 기사는 전하고 있다. 즉, 민간 레벨에서라면 문제가 없지만, 국가 레벨에서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전별금 및 동상 설치 등은 철저히 사전 체크 및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니가타의 경우와 같이 일본의 모든 곳이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동 문제가 신문 기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소설 속에서 이수영이 올려다보고 있는 석상이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나가노현(長野県)의 산속 온천 마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수영은 동시대의 동상 건립 및 기념식수를 둘러싼 지역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 하물며 한일 간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 없이 ‘중간자’라고 하는 자기 구축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4. 나오며

김학영의 「시선의 벽」은 민족적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투명한 불안감’을 느끼는 재일조선인 2세 이수영이 1968년 2월에 발생한 김희로 사건을 계기로, ‘중간자’라고 하는 포지션을 확립해나가는 프로세스를 그린 이야기이다. 특히, 김희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김달수를 비롯한 많은 재일조선인 작가(이회성, 고사명, 김시중 등)가 재판 과정에 변호인 및 참고인의 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했는데, 작품 속에서 김희로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작가는 김학영이 유일하다.

동 작품은 선행연구에서 김학영의 역사인식 측면에서 전환기적인 작품이며, 또한 조선과 일본에 이중기반을 둔 ‘중간자’적 주체 구축에 성공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김희로 사건에 대한 해석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의 의견만을 취사선택해서 ‘중간자’로서의 자기 구축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본래 ‘중간자’라고 하는 포지션은 이중기반을 통해서 한일 양국을 상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말하지만, 동 소설의 엔딩 장면에서 삽입된 1959년의 북한송환사업에 대한 표상을 보면, 동 사건에 대한 동시대의 복잡하게 얽힌 한일

정치성의 교착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선의 벽」에 대해서 일본문단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중간자’라고 하는 말과는 반대로 획일화된 자기 구축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자기 구축을 통해서 동시대의 교착된 한일관계를 포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재봉(2010) 「틈새 인간의 말더듬이 존재론-김학영과 그의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43, 현대문학이론학회, p.390.
- 이승진(2014) 「재일 한국인 문학과 일본 근대문학과의 영향관계 고찰」 『아시아문화연구』 33,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189-191.
- 강우원용(2010) 「일본 마이너리티문학의 양상과 가능성」 『일본연구』 14,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pp.220-222.
- 박유하(2003) 「<재일문학>의 장소와 교포 작가의 <조선>표상」 『일본학』 22,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192.
- 李建志(2007) 『朝鮮近代文學とナショナリズム—「抵抗のナショナリズム」批判』 作品社, p.8.
- 金鶴泳(1970) 「まなざしの壁」 『凍える口』 河出書房新社.
- 金鶴泳(1969.9) 「弾性限界」 『文芸』.
- 金鶴泳(2004) 「金鶴泳日記抄」 『凍える口 金鶴泳作品集』 クレイン, p.496.
- 金鶴泳(1968.3.6.) 「「帰ればいい」ですみますか」 『朝日新聞』.
- 山崎正純(2003) 「金鶴泳論—「まなざしの壁」」 『戦後<在日>文学論—アジア論批評の射程』 洋々社, p.45.
- 朴寿南(1968.2.26.) 「民族偏見ないだろうか」 『朝日新聞』.
- (1959.11.4.) 「帰還記念にと贈物」 『毎日新聞』.
- (1959.11.9.) 「余録」 『毎日新聞』.
- (1959.12.8.) 「北朝鮮に帰る日近く」 『朝日新聞』.
- (1960.1.11.) 「日の目を見ない“日朝親善”の像」 『朝日新聞』.

논문 투고 일자 : 2016.03.17. 논문 심사 일자 : 2016.04.18. 게재 확정 일자 : 2016.04.28.
--

<要旨>

<在日文学>と金嬉老事件
—金鶴泳「まなざしの壁」を中心に—

林相珉

本稿では1969年に発表された金鶴泳の「まなざしの壁」を中心に、在日朝鮮人2世のアイデンティティ構築のプロセスを分析した。特に、1968年2月に在日朝鮮人の差別撤廃を主張し立て籠りを行った金嬉老事件を作品の中に挿入するプロセスの分析を通じて、アイデンティティ構築をめぐる日韓の政治性についても考察を試みた。

同作品は先行研究において、金鶴泳の歴史認識および朝鮮と日本という二重の基盤を置いた「中間者」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の構築に成功したものと肯定的に評価されてきた。しかし、金嬉老事件に対する同時代の新聞記事を挿入する過程を見ると、被害者と加害者の二項対立の構図の中で、加害者としての日本人の意見だけを取捨選択し、それを「中間者」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構築の根拠にしている。

また、もともと「中間者」は二重の基盤を通じて日韓両国を相対化できるポジションであるものの、小説の最後の場面に挿入された1959年の北朝鮮帰国事業に対する解釈の過程を見ると、同事件に対する同時代の日韓の政治性についてはまったく注意を払っていないことが分かる。

従って、本稿では金鶴泳の歴史認識を巡る転換期の作品として評価されている「まなざしの壁」を中心に、アイデンティティ構築の画一化された形成プロセスと歴史認識をめぐる日韓の相互交渉性に対する研究の必要性を提示した。

<Zainichi Korean Literature> and the Incident by Kim, Hee Ro
—Focusing on 「The Wall of Eyes」 by Kim, Hak Young—

Lim, Sang-Min

Focusing on 「The Wall of Eyes」 by Kim, Hak Young published in 1969, this paper analyzed the self-structuring process of the second-generation Korean Japanese. Especially, through the analysis on the process of inputting the incident by Kim, Hee-Ro who held hostage to cry for abolishing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Japanese in February, 1968, the Korea-Japan politics focusing on the self-structuring was considered.

The novel above has been positively evaluated by preceding researches, to be successful in structuring 'the middleman-like' main agent based on dual basis in Korea and Japan, and Kim, Hak Young's historical perception. Viewing the process of inputting the news article of the time about the incident by Kim, Hee Ro, however, it took a basis of self-structuring as 'a man-in-the-middle' by choosing only Japanese' opinions as an assailant in the dichotomous structure between victim and assailant.

Originally, 'a man-in-the-middle' means the position that can relativize Korea and Japan through the dual basis. View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North Korea Repatriation Project inserted in the ending scene of the novel, however, it does not pay attention to Korea-Japan politics of the time about the event. Thus, focusing on 「The Wall of Eyes」 evaluated as a transitional novel related to Kim, Hak Young's historical perception, this paper suggested the necessity of the research on Korea-Japan mutual negotiations, concerning the standardized forming process of self-structuring and historical perception.